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²	G D P	2,313 억 달러(2011년)
인구	86.07 백만 명(2011년)	1 인 당 GDP	2,688달러(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5.94

-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8,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1981년 이래 장기집권하여 왔으나,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중동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2011년 1월에 30년 독재 정권이 종식되었고, 탄타위를 수장으로 한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는 2011년 초 시민혁명이 발발한 이후 정국 혼란과 치안공백의 여파로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收入)이 급감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영업 중단, 철수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까지도 군사평의회가 국정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권력의 민간이양을 촉구하는 반군부시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위대와 군부의 유혈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2012년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정치,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정국 혼란 등의 영향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 대폭 하락

- 2006~08년 경제는 관광산업 호조, 고유가에 따른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증가, 투자환경 개선 및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천연가스 수출과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연 7%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천연가스 부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하여 성장률 둔화 폭이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 통신 부문의 성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1%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 무바라크 퇴진 등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으로 1.8%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의 적자 폭 확대

- 재정수지는 확대재정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경기 부양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6년 8.2%에 달하였으나, 공기업 민영화와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6.6%로 축소되었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기부양 지속 등을 위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8.1%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정국 혼란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으로 1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7.1	7.2	4.7	5.1	1.8
재정수지/GDP ^{주)}	-7.3	-6.8	-6.6	-8.1	-10.0
소비자물가상승률	9.5	18.3	11.8	11.1	10.2

주: 이집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 ~ 6월 30일임.

자료: IMF 및 EIU.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격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의 영향으로 18.3%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 소비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보다 하락하였으나 11.8%에 달하였고, 2010년에도 11.1%로 추정됨. 곡물 등 생필품의 가격 급등은 높은 실업률과 아울러 민주화시위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2011년에도 정치, 사회 불안에 따른 이집트파운드화의 가치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0년을 기준으로 관광, 수에즈운하 운영, 기타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GDP의 약 46%, 섬유, 식료품가공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개발 부문이 약 40%, 면화중심의 농업이 약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 중동지역의 정치·사회 상황, 세계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대두

- 2011년 2월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음.
- 2012년에 총선 및 대통령 선거가 완료되어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야 경제정책의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

- 원유는 최대 유전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면서 생산량이 1998년 86만 b/d에서 2010년 74만 b/d로 감소세인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에 성공하여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 천연가스는 2010년 기준 확인매장량이 59조 ft^3 (전세계 매장량의 1.9%, 12위)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음. 정부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1,203조 ft^3 에 달함.
- 이집트는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회원국으로 2005년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009년 천연가스 수출량은 183억 m^3 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정식기구가 되었음. 러시아, 이란 등 11개 회원국이 세계 가스 매장량의 70%,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량: 627억 m^3 (2009년 기준, 전 세계의 2.1%) → 613억 m^3 (2010년 기준, 전 세계의 1.9%)

다. 정책성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실시

- 정부는 2008~10년에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약 54억 달러(300억 이집트파운드, GDP의 약 3%)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2008/09 회계연도에 150억 이집트파운드가 도로, 항구 등 인프라 건설 및 자유무역지대 개발 등에 투입되었으며, 2009/10 회계연도에도 150억 이집트 파운드가 인프라 건설 및 수출 보조 등에 투입되었음.
- 이러한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에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4.7%, 2010년에 5%를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공기업 민영화 지연 전망

- 정부는 2010년 1월까지 총 199개 공기업(69억 달러 규모)에 대한 민영화를 이행하는 등 비교적 착실히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수립된 과도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체결된 민영화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147개 공기업의 민영화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화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상품 수지는 적자를 지속하여 왔음. 2006~0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화획득원인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수에즈운하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로 서비스수지 흑자규모가 감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대비 1.8%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감소 등으로 서비스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1%로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2011년에 대폭 감소 추정

- 외환보유액은 관광수입과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증가,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 3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정치,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외국인투자의 감소 및 투자액 회수, 외국인들의 이집트 국채 투매,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19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 혼란 이후 급격한 자본 이탈, 이집트파운드화의 가치 급락 등으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2011년 5월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30억 달러(만기 1년, 금리 연 1.5%)를 지원 받기로 하였으나, 집권기간 중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군부가 이를 거부하였음.
-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2012년 1월 마침내 이집트는 IMF에 32억 달러, 세계은행에 10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였음.

□ 외채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 총외채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2011년 말에 약 39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GDP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7년 23.0%에서 최근 15%대로 하락하였음.
- D.S.R.도 2010년에 5.2%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412	-1,415	-3,349	-4,504	-5,224
경 상 수 지 / GDP	0.3	-0.9	-1.8	-2.1	-2.1
상 품 수 지	-14,900	-19,759	-16,818	-20,120	-25,573
수 출	24,455	29,849	23,089	25,024	27,620
수 입	39,354	49,608	39,907	45,145	53,193
외 환 보 유 액	30,054	32,108	30,947	32,351	19,589
총 외 채 잔 액	34,120	33,417	33,257	34,947	39,055
총 외 채 잔 액 / GDP	23.0	19.0	16.6	15.7	15.8
D S R	5.30	4.90	5.60	5.20	5.90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반정부 시위 발생 및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혁명은 물가 상승 및 경제난으로 고통 받던 이집트로 확대되어 2011년 1월 25일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이에 무바라크 정권은 대통령 연임 제한, 야권 인사들의 대선 출마 허용, 공공부문 급여의 15% 인상 등의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대통령의 퇴진 및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였음.

- 정권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군부가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무바라크에 퇴진 압력을 행사하자, 무바라크 대통령은 시위 발생 18일만에 퇴진 의사를 밝혔고 장기집권 체제가 종식되었음.
- 1981년에 사다트(MuhammadAnwarel-Sadat) 대통령 후임으로 취임한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은 30년 간 집권하였음.

□ 과도정부의 구성 및 국정 운영

- 무바라크의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정권을 이양받아 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며,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장군이 군사평의회를 이끌고 있음.
- 군사평의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2011년 3월의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음.
- 그러나 군사평의회가 초기에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던 것과 달리, 비상조치법과 군사재판, 민간인 감시 감독권 등으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이 이에 반발하여 반군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특히 2011년 11월에 시위 진압과정에서 40여 명이 사망하자 에삼 샤라프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군사평의회는 12월에 카말 알 간주리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였음.
- 간주리 총리는 무바라크 정권이 경제자유화 정책을 도입했던 1996~99년에 총리를 역임하였고 빈곤율 개선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추진 등으로 국민의 호평을 받았던 인물임. 군사평의회는 간주리 총리 기용은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임.
- 간주리 총리 정부는 치안 강화와 경제회복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악화되고 있는 재정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총선 실시 및 2012년 대선 예정

- 하원의원 선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27개 주에서 3차례 (각 9개 주)에 걸쳐 진행되었음.

- 1차 투표는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러졌으며,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자유정의당이 36.6%,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알누르당이 24.4%,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자유주의 세력이 13%를 득표하여 이슬람 정당들이 우위를 차지하였음.
- 2차 투표에서도 자유정의당과 알누르당은 각각 36.3%, 28.8%를 득표하는 등 이슬람 정당들이 우세를 보였음.
- 3차 투표에서도 이슬람 정당들이 약 70%를 득표하며 압승하였음. 자유정의당은 전체 498석 중 235석을 얻어 제 1당이 되었고, 알누르당은 121석으로 제 2당으로 부상하였음.
- 상원의원 선거는 2012년 1~2월에 실시되었음. 공식 선거 결과는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나 이슬람 정당이 압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헌의회는 2012년 2월 28일에 개최하고, 100명의 위원으로 개헌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작업 후 6월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예정임.
- 군사평의회는 3월 10일부터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선 실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후보 등록 시기가 빨라지면 금년 4월 또는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대통령 후보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med ElBaradei)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 아므르 무사(Amr Moussa) 아랍연맹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군부 시위로 정국 혼란

- 무바라크 퇴진 이후 권력을 잡은 군부는 시민혁명 초기에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반군부 시위대와의 잦은 유혈충돌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음.

- 2011년 11월 18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작된 '군부 퇴진' 요구 시위가 19일부터 유혈사태로 번져 3일 동안에 35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하였음.
- 특히 2012년 2월 1일에 축구장에서 관중들의 난동으로 74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군부가 민주화 시위는 강경진압하면서 축구장의 유혈난투극은 방관하였다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음.
- 무바라크 퇴진 1주년인 2012년 2월 11일에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권력의 민간이양을 촉구하며 전국 총파업을 실시하고 반군부 시위를 하였음.
- 물가 상승과 높은 실업률, 정부의 더딘 개혁 진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6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간헐적 테러 발생으로 치안 불안

- 1997년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룩소르(Luxor) 테러 사건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4월 카이로 중앙광장 자폭 테러(외국인 3명 부상), 2005년 7월 시나이반도 샴엘셰이크 폭탄 테러(64명 사망), 2006년 시나이반도 다함 폭탄 테러(19명 사망), 2009년 카이로시장 폭탄 테러(1명 사망), 2011년 알렉산드리아교회 폭탄 테러(21명 사망) 등
- 2012년 2월 5일에 이집트산 천연가스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가스관이 테러 공격으로 폭발했음. 이는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에 발생한 12번째의 가스관 폭발 사례로서 대 이스라엘 반대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치안 공백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가중

- 2011년 시민 혁명 기간에 23,000여 명의 죄수가 석방되거나 탈옥하였으며 탈옥수 중 약 5,000명이 검거되지 않고 있음.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반군부 시위로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찰 치안력이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2012년 1월에 은행 무장강도 및 현금수송차량 공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음.
- 한편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살라피스트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과 1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도 간의 갈등도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불확실성 증대

- 이집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한 이후 미국 및 서방 세계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아 왔음.
- 특히 미국은 이집트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서 매년 대규모의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무바라크 정권은 미·중동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던 국민들이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친서방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이슬람 세력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비정부기구(NGO) 탄압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2012년 2월 5일 이집트 검찰은 정부의 허가 없이 국제기구의 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비정부기구 활동가 등 내·외국인 43명을 기소하였는데 19명의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국면에 있음.

- 이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연간 13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워싱턴을 방문한 이집트 군사 대표단이 미 의원들과의 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등 향후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우려됨.

□ 대 이스라엘 관계에 불확실성 증대

- 이집트 정부는 4차례의 중동전쟁 이후 1979년에 아랍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인근 아랍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
-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은 대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국민투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창당한 자유정의당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하여 향후 대 이스라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함에 따라 외채잔액이 1989년 500억 달러에서 1991년 3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IMF와 세계은행에 구제금융 신청

- 리스케줄링 이후 외채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던 이집트 정부는 최근 일련의 정치 혼란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2011년 6월에 IMF로부터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으나, 군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관광 및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 1월 16일에 IMF와 32억 달러 규모의 단기자금 지원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세계은행에도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10억 달러를 요청하였음.

- 주요 협정 : 문화협정(1968), 무역진흥협정(1984),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 방지협정(1994), 투자보장협정(1996), 보건협력협정(2000), 차관공여협정(2001), 원자력협정(2002)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 규모는 2010년 31억 달러에서 2011년 24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무역 흑자도 2010년 13억 달러에서 2011년 10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2011년 반정부 시위 이후 양국 간 교역이 위축되었음.

- 2011년 대 이집트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7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7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8월 GS건설이 미쓰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산 5백만 톤 규모의 ERC 정유사업 EPC 계약(21억 달러)을 체결하였고, 2010년 2월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정부와 4천억 원 규모의 아인소크나(AinSokhna) 화력발전소(발전용량 1300MW)의 보일러 기자재 공급·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1년 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 1회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집트의 신재생에너지, 원전, 지하철 등 인프라 사업과 플랜트,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2월 10일에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 3명이 무장단체에 피랍되었다가 29시간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시나이반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종전의 '여행자제'에서 '여행제한'인 3단계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표 4> 한 · 이집트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1,528,199	2,240,439	1,726,816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수 입	462,978	937,560	690,957	석유제품, 천연가스, 정밀 화학원료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1년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27건, 187백만 달러

V. 종합 의견

- 이집트 경제는 2010년에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 통신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5.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와 무바라크 퇴진 등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으로 성장률이 1.8%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재정수입 감소와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자가 GDP의 10%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집트 파운드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도 전년의 2/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2012년 1월에 IMF와 세계은행에 총 42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임.
- 경제난으로 촉발된 전국적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굴복하여 30년간 장기 집권 하였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고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군부의 영향력 확대에 반발하여 반군부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1년 11월부터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이슬람 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기존의 친서방·친아랍 정책 기조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2012년 6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권이 정립되기까지는 최소한 정치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